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은평구

## 서울둘레길 7코스\_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sup>13</sup>

사람과 자연,  
도시와 자연을 잇다



걷는구간	녹지연결로 계단(봉산쪽)→녹지연결로 →갈현동 우남아파트 옆 산책로 →녹지연결로 계단(앵봉산 쪽)
걷는거리	0.8km
소요시간	2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서오릉고개는 은평구 갈현동과 구산동을 양쪽에 끼고 지나가는 큰 도로(서오릉로)에 있다. 옛날부터 서오릉(西五陵)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서오릉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오릉고개를 사이에 두고 낮은 구릉성 산지가 남북으로 뻗어있는데, 북

쪽을 '앵봉산'이라고 하고 남쪽을 '봉산'이라 부른다. 지금의 서오릉고개는 경사를 깎고 앵봉산과 봉산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깔면서 고개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2018년 7월, 서오릉로 개설로 40년간 단절됐던 '봉산'과 '앵봉산'을 연결하는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가 완성되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하여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녹지연결로는 길이 70m, 폭 10m, 높이 10m로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생물의 이동이 가능한 생태통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 둘레길을 걷다가 유명 시인들의 시를 감상하는 시비(詩碑)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장,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숲속무대 등 다양한 휴식공간도 마련되었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서울둘레길 7코스와 은평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봉산이나 앵봉산을 내려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녹지연결로를 건너 편리하게



서울둘레길 제7코스는  
 가양대교 → 난지한강공원 →  
 월드컵공원 → 불광천 → 봉산 입구에  
 이르는 7-1구간(7.3km)과  
 봉산 → 벌고개 → 앵봉산 →  
 은평환경플랜트 → 구파발역에  
 이르는 7-2구간(9.3km)으로  
 나누어진다.



- 📍 지하철 6호선 응암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들약국 정류장에서  
 은평02번 버스로 환승 후 천사원입구-서북병원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서북병원 옆 산책로 입구로 이동한다.
- ☎ 02-351-8003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화장실과 휴게시설 별도로 없음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Green-network을 구축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도시와 자연을 잇는 상생과 소통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점이다. 7만 3,000m<sup>2</sup>의 대규모 ‘팔배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봉산은 희귀성과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일명 ‘피꼬리산’이라 불리는 앵봉산에 가면 노래하는 피꼬리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서어나무 집단서식지’를 만날 수 있다. 앞으로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는 ‘앵봉산’과 ‘봉산’이라는 특별한 자연생태계를 이어줌으로써 은평구를 넘어 서울의 명소가 될 것이다.

